

## 동서양의 진화론 수용과 기독교 - 한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1)

고운이(백석대학교)

### 논문초록

이 연구는 동서양 문화 속에서 과학이론이 어떻게 전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과 스페인의 진화론 수용을 검토하였다. 진화론은 서양보다는 동양의 전통적 생명관과 닮아서, 양국의 수용 과정에서 동양종교와는 부딪치지 않았지만 서양 종교인 기독교와는 불협화음이 있었다. 진화론이 처음 전래 되었을 때 스페인에서는 카톨릭 교회 및 학계의 반발이 있었고 이후 정치적 문제로도 검열을 수차례 겪는 등 부침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진화론 개념을 위주로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는 스페인 국민이 한국인보다 진화론 이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의 종교 실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 진화론과 카톨릭의 대결구도는 이미 종식된 것에 반하여 한국의 개신교는 여전히 진화론과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제어: 진화론, 찰스 다윈, 대중의 과학 이해, 스페인, 기독교

###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새로운 과학 이론이 발표된 뒤 학계 및 대중에게 수용되고 자리잡는 과정에 각 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한 사회가 지닌 이념적 특성, 철학적 배경, 사회 구조, 시대적-정치적 상황, 과학 문화(Quintanilla, et al., 2011)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과학 이론이 사회 전반에 보급되는 데 어떤 형태로든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집단이 같은 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을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859년 『종의 기원』 출판과 함께 발표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이와 같은 비교 연구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윈은 생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를 거치며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에서 기원했으며, 종의 수는 증가한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이며, 환경에 적응을 잘한 생명체들이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고 더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된다(Darwin, 1859; Mayr, 1992).

진화론은 당시로서는 생명에 대한, 새롭고 파격적인 관점을 내재한 이론이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학계나 대중은 전통적 생명관의 영향 아래서 이 새로운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철학적-문화적 요소를 뚜렷하게 지니고 있기에, 다윈의 진화론 또한 자연스럽게 ‘이념적 함의’를 품은 철학적인 과학 이론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과학계 밖에서도 논쟁이 많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논쟁의 양상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윈 본인도 자신의 이론에 대한 독일 학자들과 프랑스 학자들의 반응이 상반된 것에 흥미를 표시하기도 했다(Darwin, 1870)

1)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La Incorporación del Darwinismo en la Cultura Cívica de Occidente y Oriente. Un Estudio Comparado de España y Corea del Sur(동서양 시민문화 속 다윈주의 보급과 수용 - 스페인과 한국 비교연구)』, 논리학 및 과학철학 전공, Universidad de Salamanca, Spain, 학위취득 2017.6. 의 일부 논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 수용과정에서 문화적 요소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양과 동양이라는 큰 문화권을 기준으로 하고, 서양의 경우 스페인, 동양의 경우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스페인은 문화는 상당히 다르지만 사회적 지표는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쌍이 될 수 있다. 우선 인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 2016년 기준 스페인 인구는 4600만, 한국은 5000만여 명이며(Worldmeters, 2016), 2015년 기준 국민총생산(GDP)은 스페인이 세계 14위, 한국이 11위를 기록했다(IMF, 2015). 또한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대륙의 양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가), 20세기에 전쟁과 독재를 겪은 뒤 민주주의 국가에 이른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나 경제규모로 인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의미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윈 진화론의 수용 과정에서 사회 저변에 깔린 철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양국의 생명관에 영향을 준 철학적 배경을 살펴본다. 진화론과의 공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진화론이 어떻게 양국에 전달되었으며 당대의 정치사회상은 어떠한지를 보고, 이후 각 사회에서 다윈 진화론이 어떻게 자리잡아왔는지를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진화론과 대립각을 세웠던 기독교가 양국의 진화론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 II.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을 닮은 다윈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 중엽 서양의 철학-과학적 전통에서 탄생한 과학 이론이지만 발표 당시 서구 학계 및 사회가 공유하던 전통적인 세계관에는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물론 진화라는 개념을 다윈이 처음 착상한 것은 아니었다. 다윈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을 발표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서양 지성계는 오랜 세월을 걸쳐 조금씩 변해왔다. 다윈의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진화 이론이 등장한 것이다.

서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신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실제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으며 과학 또한 기독교 생명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종교와 과학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 세계에 절대자와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상, 생물종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상, 인간은 모든 생물 위에 군림한다는 사상 등은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전통의 융합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서구 사회에서 굳어져 내려온 세계관이자 문화였다.

이들 전통적 세계관에 따르면 각각의 종은 신의 특수 창조 이래 당대까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으며, 신은 인간에게 온 생명을 거느릴 특권을 직접 주었다. 이런 기존의 종교적 생각과 정면 배치되는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 대중에게뿐만 아니라 식자층에게도 낯설고 불쾌한 생각일 수 있었다. 진화론은 창조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종의 변이와 신종 발생을 자연선택 및 성선택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 우연의 역할을 도입하였기 때문이었다(Grasa, 1987: 66-68; Mayr, 1992: 53-55; 최종덕, 2010: 314)

그러나 진화에 관한 생각은 주류는 아니었을지언정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서양에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했던 생명관이었으며, 서구 학계는 이를 뒷받침할 여러 학술적 경향과 그에 따른 연구 업적을 쌓아왔다. 이런 토대 위에 경험적 전통이 뚜렷했던 영국 출신의 찰스 다윈과 A. R. 윌리스가 각자 열대 지역의 군도 방문을 계기로 '자연선택'이라는 생명 진화의 매커니즘을 발견하는 데 이른 것이다(Ruse, 1988: 14; Mayr, 1992: 17-22; González, 2009: 16-17).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시점에 모든 것이 완결되었고 그 완결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서양 전통 사상과는 달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전통 사상은 우주 만물의 변화 및 순환에 방점을 찍는다.

동양에도 절대 혹은 우주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천(天)', '도(道)'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기독교 및 서양 사회의 신과 같이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었으며 인격신의 형태를 뚜렷하게 지니지 않는다. 지역

에 따라 저마다의 창조설화는 존재하지만 이는 신화의 차원에 머문다. 또한, 이들 주요 개념을 제외한 ‘만물(萬物)’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동양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Gernet, 1982: 422; 한자경, 2001: 90; 박이문, 2007: 66)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는 서양적 의미의 종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명현상이나 그 기원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하지 않으며 신과 관련한 태도는 대개 범신론에 가까운 편이다. 유일신 사상이 조직화된 종교가 동아시아에서 특세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생명현상이 자연적인 것이며 우연이 이에 개입한다는 다윈 이론 개념은 특정 동양 종교에 타격이 되지 않았다.

또한, 서양 전통사상 속에서 인간이 누리고 있던 독점적인 지위는 동양 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동양설화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다른 생물의 ‘변신’ 모티프나, ‘윤회’ 등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종과 다른 동물의 개념적 경계가 서양에 비해 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최종덕, 2010: 340; 송영배, 2012: 378)

물론 동양 사상과 다윈 진화론의 유사성은 부분적이며, 동양 사상 가운데에는 다윈 진화론과 공존할 수 없는 사상도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의 일반 대중이 지녔을 생명관을 가늠해보면 서양의 경우와는 달리 다윈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접할 때 즉각적인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사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 속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는 동양 사상에 빚대어 볼 때 생존경쟁이란 잔인하기도 하지만, 수용 시기의 정세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내용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수용 과정에서 사상적 반발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스페인과 한국의 진화론 초기 수용

영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스페인에는 진화론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내용이 전해졌다. 이론이 체계적으로 전해진 것은 아니었고 다른 과학자의 저서에 언급되거나 극히 일부분만 백과사전 등에 수록되는 등 부분적으로 전래되었다(Núñez, 1997:32). 학계와 교회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윈의 원저작은 십수 년이 흐른 1877년에야 완역되었다(Brumme, 2013).

스페인의 진화론 초기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은 카톨릭 교회였으며, 정치사회적 사건은 6년 혁명(민주6년, Sexenio Revolucionario, 1868-1874)과 프랑코 독재라고 볼 수 있다. 혁명기 진화론은 학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교회와 보수적 정치세력은 진화론을 자신들과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로 생각하여 권력을 잡을 때마다 다윈 진화론이 보급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당시 스페인 학계에서 과학은 변방에 가까웠고, 생명관은 철학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 철학계는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독일의 만유제신론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았으며 프랑스 학계와도 교류가 활발했다. 『종의 기원』의 스페인어 최초 완역본은 다윈의 원전이 아니라 로이어의 프랑스 어판을 번역한 것이었는데, 진화와 진보를 혼용하여 번역하여 다윈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Pelayo, 2009a: 105). 같은 시기 유신진화론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윈주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론으로서 과학계에서 목소리를 얻기 시작했다. 이는 카톨릭 신앙과 다윈 진화론의 공존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으로서, 이미 수많은 증거가 축적된 진화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보다는 좀더 학술적인 태도이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유신론적 해석은 카톨릭 전통이 뚜렷한 스페인이 받아들이기에도 훨씬 수월한 형태였기에, 엄밀한 의미의 다윈적 개념보다 더 널리 수용되었다(Pelayo, 2009b: 29; Simó, 2004: 210).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부르봉 왕가에 대항하여 발발한 ‘6년 민주혁명’은 진화론이 스페인 학계의 주목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혁명 이전에는 다윈 이론의 과학적 의의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는데, 혁명 기간 동안 출판의 자유가 허용되고 과학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다윈 관련 서적도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혁명기는 6년으로 짧게 끝났고 이후 왕정복고로 검열은 더욱 엄격해졌다. 카톨릭 교회는 진화론

을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이론’으로 규정하고 항상 진화론의 대척자로 군림하였다. 진화론은 카톨릭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였을 때 언제나 검열을 당했고 교육 과정에서도 진화론은 배제되었다(Núñez, 1997: 31).

1936년 발발한 군사 쿠데타에 이어진 스페인 내전(1936-1939) 이후 프랑코가 정권을 잡았고(재임 1937-75) 이는 카톨릭 교회의 집권과 다름없었다. 독재 전반기 엄격한 검열 아래 다윈 진화론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대학에서도 연구자가 급감하고 상당수가 타국으로 망명하게 된다(Blázquez, 2013: 25). 독재 후반기에 접어든 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진화론은 다시 교과서에 등장하고, 학계의 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요약하면, 스페인은 처음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체로 온건한 내용 위주로 진화 이론을 수용했다. 특히 카톨릭 교리와의 공존을 위하여 유신론적 태도를 유지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큰 어려움 없이 진화 이론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양의 전통 사상과 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다윈 진화론은 친 카톨릭 성향의 보수적 정치체제가 들어설 때는 예외없이 검열로 인해 교과서에서 퇴출되고 대학에서의 연구도 위축되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는 점점 더 과학계에 퍼져 나갔고 프랑코 독재 후기부터는 스페인 학계 전체에서 주요한 테마로 떠올랐다.

한국은 쇄국정책으로 인해 서구와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으므로 다윈의 이론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제에 의한 강제 개항 이후 서구사상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 이론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기도 어려웠고, 서양식 사고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서양 이론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했다.

다윈의 이론은 부분적으로 중국, 일본, 미국을 통해 도입되었고, 독일을 거쳐서 들어오기도 했다. 물론 진화론만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서양사상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일종의 ‘필터’를 통과한 뒤 한반도에 도달했다. 일부 학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회진화론을 국내에 소개했다. 사회를 유기체로 보고 이를 다윈 진화론의 개념으로 풀이한 이론이었다(우남숙, 1999: 28) 당시 열강의 위협을 받고 있던 아시아, 특히 일본의 직접적 침략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작은 나라 한국의 입장에서 힘을 키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사회진화론의 확산을 불렀다. 그 와중에 생물학적 개념으로서의 다윈 진화론은 별도의 검토도 없이 덩달아 수용된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수용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 특성이다.

한국의 다윈 진화론 초기 수용은 일부 해외파 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종교적 논쟁도 과학적 논쟁도 없었다. 대중은 학자들이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해 전달하면서 진화론 개념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제공한 내용만 접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다윈 진화론은 광복 후 처음 만든 독자적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검열-삭제 등의 대상에 오른 적이 없었고 생물 교과목의 주요 내용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조경임, 2007).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전쟁과 독재를 겪었는데, 한국의 독재정권은 북한을 경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을 검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반면 과학 이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열하지 않았다. 한국의 독재 정권은 스페인처럼 뚜렷한 종교 편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개신교도 진화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진화론이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 스페인에서와는 달리 이론 자체에 대한 논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진화론의 세계관이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과 공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은 서양 사상을 한꺼번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별 이론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었다. 또한, 근대 과학을 연구하는 학계가 자리잡기 전이었으므로 과학 이론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회적으로도 진화론으로 인해 위협받는 사상이나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 IV. 오늘날 양국 사회 속의 진화론과 기독교

스페인과학기술재단(FECYT)의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 83.7%는 “인류는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생물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답했다(FECYT, 2015: 333). 이와 유사한 질문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답했을까? 한국갤럽이 2012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간은 다른 생물종에서 진화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45%였다(한국갤럽, 2012: 2).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오늘날 진화론의 최후의 적으로 남은 종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윈 진화론이 스페인에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종교계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논쟁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최근에는 별다른 잡음을 찾아볼 수 없다. 도입 초기에 한국에서는 종교계의 반발은 전혀 없었다.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는 진화론과 별다른 논쟁점이 없었으며, 서구 종교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개신교 그룹이 진화론에 반발해서 집단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양인에게 기독교는 ‘전통’이며 ‘구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 사회의 경우 여전히 짙은 종교색을 띠지만 종교는 대중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종교에서 비롯된 문화는 자연스럽게 즐기지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종교’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문화’ 그 자체에 가까운 것이다.

오늘날의 스페인을 ‘카톨릭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단정적이라면, ‘카톨릭 전통 위에 서 있는 사회’ 혹은 ‘카톨릭 전통으로 구축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예산 중 매년 카톨릭교회로 흘러가는 금액이 있으며, 교육 과정에 포함된 <종교> 과목은 카톨릭 교리를 가르친다. 헌법에 국교가 없음을 명시했지만 “카톨릭 교회와 그 외”(Constitución Española, 1978: Artículo 16)라는 형태로, 카톨릭 교회는 별도로 언급된다. 많은 스페인 국민이 카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헌법 기재’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스페인 국립 사회학연구소(CIS, 2016)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 중에서 본인이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70%에 가깝지만 매주 미사에 가는 사람은 그 중 2%에 불과하다.

스페인에서는 독재 시기 국가 차원의 사상검열에 진화론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검열 대상 중 하나였다. 독재정권의 쇠락과 함께 진화론은 교육과정으로 돌아왔으며 종교적 이유로 진화론을 배척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되어갔다. 또한 1996년 교황청이 정식으로 진화론을 인정하면서 카톨릭과 진화론의 갈등은 표면상으로 완전히 종식되었다.

스페인 인구의 70%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은 다윈 진화론 수용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찍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물학자 F.J. 아얄라 등 스페인 사회가 인정하는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카톨릭 신앙과 진화론의 공존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제거된 상태이다(Ayala, 1994; Ayala, 2007; Blázquez, 2013).

한국사회의 정교분리는 헌법에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1987: 제20조). 공공 문서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등대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유산으로 판단되는 종교적 구조물, 유물 등의 관리 비용을 제외하면 특정 종교에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 지형은 오늘날 유럽 사회의 신앙 방식과 매우 다르다. 22%를 차지하는 불교인 중에서는 6%만 매주 절에 가지만 21%의 개신교인 중 80%가 매주 교회에 가고, 7%의 천주교인 중에서는 60%가 매주 미사에 참석한다(한국갤럽, 2015). 이처럼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정기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Allport and Ross, 1967: 432). 예상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진화론 수용에도 두드러진 경향성을 보인다. 한국의 개신교인 75%, 천주교인 42%가 생명체는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다. 불교 신도 중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16%인데, 이는 무종교인의 17%와 비슷하다. 반면 개신교인 중 14%, 천주교인 31%, 불교인 46% 무종교인 중에서는 63%가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한다(한국갤럽, 2012: 2). 즉 한국에 자리잡은 서양 종교가 서양 사상인 다윈 진화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종교가 진화론 수용에 영향을 미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진화론은 검열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초기 수용에서 반발을 겪지 않았던 진화론은 한국에서 최근에 와서야 반대세력을 만나게 된다. 1980년대 몇몇 개신교인 학자들이 ‘한국창조과학회’를 조직했고 책과 잡지들을 발행하며 창조론이 진화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80-90년대 개신교의 부흥을 계기로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고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을 해외에 전파하기도 했다(Numbers, 2009: 221-222). 다윈 탄생 200주년,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09년에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이들은 2012년 교육부에 생물 교과서 진화론 내용 수정 청원을 제출했다. ‘교진추’는 자신들의 행동에 종교적 배경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교과서 진화론 세부 내용을 문제 삼아 결국에는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언론은 무관심했고 교육부는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무심코 청원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이를 포착한 해외 언론의 보도로 뒤늦게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다. 생물학자 및 교사들은 이에 반발했고, 교육부는 반론을 받아들여 종교적 청원을 교과서 개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원을 거부했다(Lee, 2012; Mok y Song, 2012; Park, 2012a; Park, 2012b; Traywick, 2012).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 학계에서는 이미 ‘지나간 논쟁’이 된 진화론-창조론 논쟁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의 당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다윈의 진화 이론이 처음 스페인과 한국에 도달하였을 때는 세계는 지금처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던 시기였고, 과학 이론은 각국의 지식층을 통해 우선 수용된 다음 그들의 해석에 의해 대중에 보급되었다. 당시 스페인은 카톨릭 전통이 강했고 학자층에도 사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철학과 종교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철학적, 종교적 반발에 맞닥뜨린 것은 당연했다. 이들이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진화론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영향 아래 놓인 상황에서 서양의 다른 사상들과 한꺼번에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양국의 영향과 사회-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진화론 위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한국과 스페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양국은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들어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발달된 매체와 통신망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과 스페인인이 ‘생명의 진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제 더 이상 양국의 전통 문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로 변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종교가 ‘개신교’일 경우 가장 결정적으로 진화론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나가며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발표된 다윈 진화론은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과학 이론 중 하나다. 새로운 세계관을 품고 세상에 나왔던 그 시대이건, 현대 생물학의 기반으로 자리잡은 지금 이건 다윈 진화론을 둘러싼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논쟁의 무대가 스페인이든 한국이든, 100년 전이건 오늘날이건, 다윈 진화론의 반대편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 사상이 있었다. 동양사상은 한 번도 다윈 진화론을 적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

스페인의 진화론 수용 초증기에 카톨릭 교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논쟁의 시기가 지나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카톨릭 신앙과 진화론은 대립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스페인 국민의 80% 이상이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수용 초기 종교적 갈등은 없었지만 ‘생존경쟁’을 사회 속 경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한국의 경우, 오늘날까지도 일반 국민의 진화론 이해 비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개인의 종교가 진화론 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카톨릭 교회는 이미 20여 년 전 공식적으로 진화론을 수용했다. 물론 생명의 진화 과정에 신의 역할을 포함하는 유신진화론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 정도의 절충적 태도로도 과학계와의 충돌이 거의 자취를 감추

었다. 스페인 사회는 뚜렷한 카톨릭 문화를 지니지만 이는 국민의 진화론 수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진화론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과학계의 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서양의 주요 사상 중에서는 개신교와 이슬람교만이 진화론의 반대자로 남아 있다. 개신교 신앙은 한국인의 진화론 수용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에는 카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통합된 목소리를 낼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이 논쟁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Allport, G. W. and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pp. 432-443.
- Ayala, F. J. (1994). *La naturaleza inacabada. Ensayos en torno a la evolución*. Barcelona: Salvat Editores S.A.
- Ayala, F. J. (2007). *Darwin y el Diseño Inteligente*. Madrid: Alianza.
- Blázquez, F. (2013). "Breve historia del darwinismo en España". *Ambiociencia - Revista de Divulgación Científica*, 11, pp. 23-28.
- Brumme, J. (2013). "La transmisión del saber Darwin vía Francia". En: SINNER, C. (ed.) *Comunicación y transmisión del saber entre lenguas y culturas*. Múnich: Peniope.
-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2016). Barómetro de abril 2016 Estudio número 3134.
- Darwin, C. (1859).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Londres: John Murray.
- Darwin, C. (1870). To Armand de Quatrefages 28 May [1870]. In: Darwin, F. y Seward, A. C. (eds.), *More Letters of Charles Darwin*. Londres: John Murray.
- Fundación Española para la Ciencia y la Tecnología (ed.) (2015) *Percepción Social de la Ciencia y la Tecnología 2014*. Madrid: FECYT.
- Gernet, J. (1982). *Chine et Christianisme, action et reaction*. París: Gallimard.
- González, W. J. (ed.) (2009). *Evolucionismo: Darwin y los enfoques actuales*. A Coruña: Netbiblo.
- Grasa, R. (1987). *El Evolucionismo de Darwin a la Sociobiología*. Madrid: Cincel.
- Mayr, E. (1992). *Una larga controversia. Darwin y el darwinismo*. Barcelona: Crítica.
- Numbers, R. L. (2009). *Galileo Goes to Jail and Other Myths about Science and Religio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Núñez, D. (1997). "El darwinismo en España: un test significativo de nuestra situación cultural". *Revista de Hispanismo Filosófico*, 2, pp. 31-36.
- Pelayo, F. (2009a). "Debatiendo sobre Darwin en España: Antidarwinismo, Teorías evolucionistas alternativas y Síntesis moderna". *Revista de Historia de la Medicina y de la Ciencia*, LXI (2), Julio-diciembre de 2009, pp. 101-128.
- Pelayo, F. (2009b). "Darwin en España. Las Controversias sobre la Teoría de la Evolución en la Comunidad Científica Española". *Apuntes de Ciencia y Tecnología*, 33, pp. 27-33.
- Quintanilla, M. Á. et al. (2011).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ulture in ESO textbooks*. Salamanca, USAL.
- Ruse, M. (1988). *Philosophy of Biology Today*. Nueva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imó, J. (2004). "La Naturphilosophie en España. La Recepción del Evolucionismo en el entorno de la Tradición Krausista". *Revista de Historia de la Medicina y de la Ciencia*, LVI (2), pp. 197-222.
- 박이문 (2007). 『나비의 꿈이 세계를 만든다』, 서울: 웅진문학
- 송영배 (2012). 『동서 철학의 충돌과 융합』, 서울: 사회평론
- 우남숙 (1999). "한국근대사에서의 사회 진화론 수용 양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7 (21), pp.

27-59.

조경임 (2007).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생물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최종덕 (2010). 『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 서울: 휴머니스트

한국갤럽 (2012).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여론조사, 서울: 한국갤럽.

한국갤럽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

한자경 (2001). 『동서양의 인간 이해』, 서울: 서광사

IMF (2016). World GDP Ranking 2015. <http://knoema.es/nwnfkne/world-gdp-ranking-2015-data-and-charts> [검색일 2018.4.2].

Traywick, C. (2012) “South Korean Textbooks Reject Evolution”. *Time*, 12 Jun. <http://newsfeed.time.com/2012/06/12/south-korean-textbooks-embrace-creationism/> [검색일 2018.4.2].

Worldmeters (2016) Countries in the world by population (2016). <http://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population-by-country> [검색일 2018.4.2].

목정민, 송현숙 (2012). “학회 시조새, 교과서 삭제 안된다... 기독교계·과학계 충돌”, *경향신문*, 2012.6.21, [검색일 2018.4.2].

박수빈 (2012a). “South Korea surrenders to creationist demands”. *Nature*, 7 Jun. <http://www.nature.com/news/south-korea-surrenders-to-creationist-demands-1.10773> [검색일 2018.4.2].

박수빈 (2012b). “Science wins over creationism in South Korea”. *Nature*, 6 Sep. <http://www.nature.com/news/science-wins-over-creationism-in-south-korea-1.11377> [검색일 2018.4.2].

이근영 (2012). “교과서에서 ‘시조새’ 뺀다고? 한국 실망이야”, *한겨레*, 2012.7.14.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537861.html](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537861.html) [검색일 2018.4.2].

Constitución Española(스페인 헌법) 1978. Madrid: Cortes Generales de España.

대한민국 헌법 1987, 서울: 대한민국법무부.

요약본/

## 동서양의 진화론 수용과 기독교 - 한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2)

고운이(백석대학교 철학과 외래교수)

### 논문초록

이 연구는 동서양 문화 속에서 과학이론이 어떻게 전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과 스페인의 진화론 수용을 검토하였다. 진화론은 서양보다는 동양의 전통적 생명관과 닮아서, 양국의 수용 과정에서 동양종교와는 부딪치지 않았지만 서양 종교인 기독교와는 불협화음이 있었다. 진화론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스페인에서는 카톨릭 교회 및 학계의 반발이 있었고

2)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La Incorporación del Darwinismo en la Cultura Cívica de Occidente y Oriente. Un Estudio Comparado de España y Corea del Sur*(동서양 시민문화 속 다윈주의 보급과 수용 - 스페인과 한국 비교연구), 논리학 및 과학철학 전공, Universidad de Salamanca, Spain, 학위취득 2017.6.의 일부 논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후 정치적 문제로도 검열을 수차례 겪는 등 부침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진화론 개념을 위주로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는 스페인 국민이 한국인보다 진화론 이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의 종교 실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 진화론과 카톨릭의 대결구도는 이미 종식된 것에 반하여 한국의 개신교는 여전히 진화론과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제어: 진화론, 찰스 다윈, 대중의 과학 이해, 스페인, 기독교

## “동서양의 진화론 수용과 기독교: 한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논평

정대경(명지대학교 철학 외래교수)

고운이 박사는 1859년 종의 기원 출판을 통하여 제시된 생물진화이론이 스페인과 한국에 각각 사회적으로 수용된 형태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고박사는 다윈 진화론이 수용될 당시 스페인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카톨릭 사제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3쪽), 그들에 의해 다윈 진화론이 배격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란시스코 J. 아얄라의 주장들을 통하여 진화론이 카톨릭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수용되어 진화론이 정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4쪽) 하지만 암묵적으로 고박사는 현재 스페인 내 카톨릭 신앙이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카톨릭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 확립이 어렵지 않았음을 주장한다.(5-6쪽)

고박사에 따르면, 스페인과 달리 19-20세기 초반 한국은 “힘을 키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을 급속하게 수용할 수 있었고, 덩달아 다윈 진화론도 쉽사리 수용되었다.(5쪽) 하지만 1970-80년대 급속도로 개신교가 확장되면서, 그리고 나아가 창조과학이 대두되면서 한국 내 다윈 진화론에 대한 반감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현재에는 개신교의 창조론과 다윈의 진화론이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6-7쪽)

이러한 현상 이면에 고박사는 동서양의 사상적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스페인에서 다윈 진화론이 초기에 수용되기 어려웠던 원인이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 신앙체계라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출현하였다는 다윈의 “생명의 나무” 개념, 생물 종들이 끊임없이 “종분화”로 인해 변화하고 종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이해 등은 카톨릭교회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해, 곧 기독교적 가르침과 헬라철학적 사고의 종합인 모든 종들은 고정되어 있고, 각각의 종들은 일정한 시점에서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적 사유와 양립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진화론을 사상검열을 통해 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고박사에 따르면, 동양적 사상은 유일신과 인격신 개념이 없는 범신론적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을 지배적인 하나의 신이 창조하였다는 서양 기독교의 주장과 달리 동양적 사상에는 단일 신에 의한 창조라는 이해가 없다. 또한 동양적 사상은 “‘만물’은 항상 변화”한다는 이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윈이 제시한 우연을 기초로한 (유전)변이와 자연선택의 진화론, 종들의 변화와 같은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박사는 서양의 기독교가 담지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과 달리 동양사상에서는 인간이 다른 생물로 변신하는 모티프나 윤회 같은 개념들이 나타나는바, 인간이 진화과정을 통해 출현하였다는 진화론이 충격적이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하는 듯 하다. (2-3쪽)

이상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고박사는 초기 스페인에서 카톨릭 신앙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진화론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후기에 이를수록 그것이 종교현상이 아닌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진화론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스페인 사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독교가 자리 잡기 이전인 초기 한국에서는 동양사상과 양립가능한

진화론이 무리 없이 수용되었는데, 70-80년대 이후 기독교가 급속도로 한국 사회 안에 팽창되면서 이와 더불어 진화론의 입지가 위태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박사는 동양사상은 진화론과 무리 없이 양립 가능하지만, 서구식 기독교 사상은 다원 진화론과 양립불가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기독교 신학 전통 안에서 자연원인과 비자연원인 사이의 양립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왔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존재의 바다에 떠있는 스펀지”와 같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이해 안에서 그는 당대의 급진적 자연발생(Spontaneous Generation)과도 같은 자연철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적 가능태-실현태를 바탕으로 씨앗창조론과 같은 창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신학 전통은 현대 이중행위(Double-Agency) 이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자연선택과 변이를 통해 모든 생물 종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출현하였다는 다원진화론과 양립가능하다. 고박사 또한 “유신진화론”을 몇 차례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그렇다면, 스페인과 한국 상황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독교 종교와 자연과학,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관점을 통해서 분석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진화론 수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진화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철학자 이안 G. 바버의 종교와 과학에 관한 4가지 유형론적 입장 중 성서문자주의자와 무신론적 진화주의 혹은 존재론적 자연주의가 대립하는 것으로 재고 볼 수 있지 않을까?